

안녕하십니까? 미한국상공회의소(KOCHAM) 사무국입니다.

아래 경제 기사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미국 경제]

- WSJ: 2월 미 물가 안정적...연 2.4% 상승

[중동 위기 오일]=

- WSJ: IEA 회원사들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합의
- YahooFinance: 원유가 떨어져도 휘발유가 쉽게 하락 안 해

[JP 모건 보고서]

- JP 모건: 중동사태, 통화정책 그리고 미 중간 선거

[미국 금융]

- Bloomberg: 유가 다시 오르며 미 증시 혼조세

[세금]

- WSJ: 연방 상원의원, 수백만 미국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제안

[미국 생활]

- YahooFinance: 미국인 '단계적 은퇴' 조금씩 늘어난다

[주택]

- Bloomberg: 미 주택 모기지 다시 올랐다...6.19%

[중국 경제]

- WSJ: 트럼프 방문 앞두고 중국 수출 큰 흑자 기록

---

[미국 경제]

**WSJ: Inflation Held Steady at 2.4% in February**

**2월 미 물가 안정적...연 2.4% 상승**

- 2월 소비자 물가가 지난해 동월에 비해 2.4% 상승했다. 전체 소비자물가지수(Headline CPI)와 변동성 큰 식품과 에너지 등을 제외한 근원 소비자물가지수(Core CPI) 모두 시장 예상치에 부합해 전월 대비 각각0.3%, 0.2% 상승을 기록했다. 안정적이다.
- 그러나 중동 위기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이 수치는 향후 인플레이 변화를 비교하는 기준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최근 벤치마크 미 오일 선물은 배럴당 82불로 2월의 65불보다 상승했다. 향후 3월 인플레이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 연준은 오늘 발표된 연방 노동국의 소비자 물가지수(CPI)보다 상무부가 별도로 이번 주 금요일 발표하는 개인소비지출물가지수(PCE)를 더 선호하는데 (아직 발표되지 않은) 1월의 이 수치는 2.9%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WSJ: Record 400 Million Barrels of Oil Approved for Release From Emergency Reserves

### IEA 회원사들 4억 배럴 비축유 방출 합의

-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이 역대 최대 규모인 4억 배럴의 전략 비축유 방출에 합의했다. IEA의 공식 발표 직후 서부텍사스산 원유 가격은 일시적으로 하락하며 배럴당 86달러 수준으로 떨어졌다.
- 일본 또한 이르면 다음 주부터 비축유 방출을 시작할 예정이다.
- 한편, 이란은 보복성 공격에서 지속적인 타격 체제로 전략을 바꾸었다.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서 선박 3척이 피격되었으며, 두바이 공항 인근에는 드론이 추락했다.

### Oil Climbs Despite Stockpile-Release Approval



Source: Nymex

기사

## YahooFinance: Gas prices that 'go up like a rocket, down like a feather' were a problem for Biden. Now they may haunt Trump.

### 원유가 떨어져도 휘발유가 쉽게 하락 안 해

- 트럼프는 이란 전쟁이 곧 종식될 것이며, 지난달 대비 평균 0.64달러 급등한 휘발유 가격도 곧 안정될 것이라 공언했다. 하지만 과거 사례를 볼 때 유류 가격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이 설명한 '로켓과 깃털(rockets and feathers)' 현상에 따르면, 원유와 휘발유 가격은 항상 나란히 움직이지 않는다. 지난 주 교전 시작과 함께 국제 유가(Brent)와 미국 유가(WTI)가 로켓처럼 동반 급등하자 주유소 가격도 즉각 치솟았다.
- 그러나 문제는 하락기다. 원유 가격이 내려가더라도 휘발유 소매가는 깃털처럼 매우 천천히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소비자들은 한동안 높은 가격 부담을 떠안을 가능성이 높다

기사

## JP모건: Middle East Conflict, Monetary Policy and Midterm Elections 중동사태, 통화정책 그리고 미 중간 선거

- 아래는 싱가포르에서 열린 APAC Macro Conference의 핵심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 **지정학적 리스크:** 이제 투자자들은 관세보다 중동 전쟁 위험을 더 우려한다. 중동 분쟁이 짧게 끝나더라도 고유가와 금리 상승을 유발해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 **대통령의 무역 권한:** 최근 대법원이 대통령의 독단적인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걸긴 했지만, 의회가 제 역할을 못 하면서 무역 정책에서 대통령이 휘두르는 힘은 오히려 더 커졌다. 이에 따라 관세율은 9~10%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 **금리와 유동성:** 연준의 독립성은 유지되겠지만 유동성 규모가 커서 금리 인하가 쉽지 않을 것이다. 특히 AI 투자 열풍이 금리를 예상보다 높게 묶어둘 수 있다.
- **AI의 역설:** AI는 나중에 생산성을 높여주겠지만, 당장 인프라를 깔고 공장을 짓는 단계에서는 오히려 물가를 올리는 인플레이 여파를 줄 수 있다.
- **재정 리스크:** 미국의 부채 문제는 심각한 리스크인데 2032년 사회보장기금 고갈 위기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정치권에서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 **정치 향방:** 2026년 중간선거는 고물가 불만 속에 치러지며, 하원은 민주당이 차지하고 상원은 경합이 예상된다. 2028년 대선은 민주당 후보가 난립하는 가운데, 공화당에서는 Vance가 초반 선두 주자로 꼽힐 것으로 보인다. 참조; 로딩이 쉽게 안될때는 추후 다시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사

### [미국 금융]

#### Bloomberg: Stocks Churn as Oil Holds Rally After IEA Move 유가 다시 오르며 미 증시 혼조세

- 지정학적인 우려 때문에 트레이더들이 주식과 채권을 함께 매도하면서 가격이 약간의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유가는 급등했다. 주요국가들의 비상 비축유 방출 결정에도 불구하고, 전쟁이 지속되는 상황이라 에너지 가격 억제 효과는 일시적일 것이라는 분위기다.
- 중동 위기전에 비교적 완만해 보였던 물가 상황들은 시장 분위기를 돌리기엔 역부족이었으며, S&P500 지수는 보험권에 머물렀다. 오늘 수요일 발표된 소비자물가(CPI)가 예상치에 부합했음에도 국제 가격은 하락세를 유지했으며,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단 한 차례만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기사

### [세금]

#### WSJ: Democratic Senators Hatch Plans to End Income Taxes for Millions of Americans

## 연방 상원의원, 수백만 미국 저소득층 소득세 감면 제안

- 민주당 연방 상원의원 Chris Van Hollen과 Cory Booker는 수백만 명의 중산층과 저소득층을 위한 대규모 세금 감면안을 제안했다.
- Van Hollen 의원은 연소득 4만 6천 달러 이하 개인에 대한 소득세를 폐지할 것을 제안했고, Booker 의원은 개인의 표준공제를 3만 7천5백 달러로 두 배로 늘릴 것을 제안했다.
- 그런데 재정 정책 전문가들은 이러한 제안이 세수 기반을 축소할 수 있으며 의회에서 법안 통과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기사

### [미국 생활]

#### YahooFinance: More workers are taking a phased approach to retirement — and employers are starting to help 미국인 '단계적 은퇴' 조금씩 늘어난다

- 미국 회사 Abbott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60세 매니저 Elizabeth Conway는 최근 회사의 '단계적 은퇴(Phased Retirement)'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있다. 그는 이를 "내가 정말 은퇴가 준비됐는지 확인하는 테스트 해보고, 내 속도와 조건에 맞춰 나가는 과정"이라고 설명한다.
- 이처럼 유연한 스케줄과 가벼운 업무량을 시행하는 단계적 은퇴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회사는 아직 많지 않다. 7%의 정도에 불과하며, 약 20%의 기업은 직원이 매니저와 상의해 이 같은 방식을 '비공식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 아직 공식적으로 활발하지 않지만 숙련된 인력을 유지하려는 기업과 유연하게 은퇴를 원하는 근로자의 필요성이 맞물리며 이에 대한 관심은 늘고 있다.

기사

### [주택]

#### Bloomberg: US Mortgage Rates Climb to 6.19% in Biggest Gain Since September 미 주택 모기지 다시 올랐다...6.19%

- 지난주 미 주택 모기지율이 지난 9월 이래 가장 크게 올랐다. 최근에 주택 용자 비용이 회복되는 주택 시장이 다시 부담되는 상황으로 바뀌고 있다.
- 3월 6일 끝나는 주의 30년 변동 모기지율이 6.19%라고 전국은행협회(MBA)는 오늘 수요일 발표했다.
- 이와 관련 모기지율과 연관이 있는 10년물 미 국채 금리가 크게 상승했다. 중동 위기가 오일 흐름을 흔들리게 하고 인플레이 우려도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 수주간 금리가 낮게 유지된 상황에서 앞으로 대출 비용(금리)이 다시 상승하리라고 우려되면서 예비 구매자들이 서둘러 주택 구매 신청에 나선 것이다. 그 결과 주택 구매 신청 지수가 1월 초 이후 최대 폭인 7.8%로 상승했다.

[중국 경제]

**WSJ China's Export Machine Keeps Pumping Ahead of Trump Visit**  
**트럼프 방문 앞두고 중국 수출 큰 흑자 기록**

- 중국은 트럼프의 베이징 방문을 앞두고 1~2월 수출이 21.8% 급증한 6천5백70억 달러를 기록하며 무역 흑자를 약 2백1백40억 달러까지 늘렸다.
- 반면에 이 기간 대미 수출은 11% 감소했는데, 최근 관세 부과에 제동을 건 미 대법원의 판결 때문에 중국의 수출 점유율은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 중국 정부는 2026년 경제 성장률 목표치를 4.5%~5%로 하향 조정하고 내수 진작을 약속했는데 새로운 발표는 하지 않았다.